1조4천800억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예타 문턱 넘었다

오는 2036년까지 왕곡면 일원에 구축

100㎿급 실증로 핵심기술 개발 본격화

연구인력 2천명↑…에너지 거점 도약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에너지의 핵심기술을 개발할 국가 연구거점이 나주에 들어선다.

1조4천8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전남광주가 미래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조감도〉

이번 사업의 핵심은 100㎿급 한국형 혁신핵융합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설계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활용하는 핵융합은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 차세대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시설은 나주시 왕곡면 일원에 2036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핵융합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향후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 기반을 확보하는 국가 연구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전남광주시는 예타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도 본격화한다. 토지보상과 부지 정지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해 2028년까지 연구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시설 구축은 전남광주의 에너지산업 지형을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이 들어서면 연구인력 2천명 이상이 상주하고, 국내외 연구자 2천-3천명이 매년 나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에 집적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의 연구 역량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핵융합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기술 실증,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할 경우 미래 에너지산업 생태계 확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나주시는 연구시설과 별도로 주변 부지를 활용해 핵융합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등을 집적하는 산업 기반 확장도 구상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사업화와 관련 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예타 통과로 나주는 기존 에너지산업 기반에 핵융합이라는 미래 에너지 분야까지 더하게 됐다. 한국전력과 켄텍을 중심으로 형성된 에너지 연구 기반과 국가 핵융합 연구시설이 결합할 경우 전남광주가 미래 에너지 기술과 산업을 함께 키우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용석 전남광주시 에너지산업본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국가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028년까지 부지를 적기에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연말부터 공공요금 줄인상…서민 가계 '비상'

광주권 상하수도 12월 8.7%·8.5%↑

전남권 시·군은 지역별로 시기 제각각

내년 교통도…광역 환승 100% 할인



'푸른 눈의 목격자' 힌츠페터 특별전 5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옛 전남도청 특별전시실에서 '기록은 계속된다-푸른 눈의 목격자, 힌츠페터가 남긴 유산' 특별전이 열려 관람객들이 5·18 당시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특별전은 내년 3월28일까지 이어진다. /조영권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상하수도와 택시, 도시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시민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5일 전남광주시와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권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오는 12월 각각 8.7%, 8.5% 인상될 예정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내년까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기존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전남권 시·군은 지역별로 인상 시기가 다르다.

상수도는 나주·영광, 하수도는 나주·광양·영광에서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반면 담양·영암·장성의 상수도와 무안·영암·장성의 하수도는 올해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내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의 중형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4천300원에서 4천800원으로 500원 오를 전망이다. 인상안은 지난달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연말까지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지난해부터 기본요금 4천800원을 적용 중인 광주권과 같은 수준이 된다.

다만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광주권 1.7㎞, 전남권 2㎞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는 소매공급비용 인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전남권은 메가줄(MJ)당 2.38원에서 2.42원으로, 광주권은 2.03원에서 2.07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요금을 일반 교통카드 기준 250원 또는 300원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광주권 일반 교통카드 요금은 현재 1천250원으로, 2027년 이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도 인건비와 바우처택시 사업비 증가에 따라 이용요금과 지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광역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전남광주시는 내년부터 광주와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등 인접 5개 시·군을 오가는 광역 대중교통의 환승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1면 '기아, 광주공장에 투자'서 계속

자율주행 실증 기반이 넓어지는 가운데 기아의 미래차 생산시설 투자까지 더해지면서 광주지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기아 측에서 광주공장 투자계획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 규모와 생산시설 확충 방향, 향후 생산 차종 등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 "공공주도 영농형 태양광 개발"

농가 소득·지역 기업 RE100 수요 연계

연내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협약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기업의 RE100 전력 확보를 지원하는 공공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개발에 나선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관계기관 업무공유회를 열고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계획입지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2월1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이번 공유회에서는 민간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공공이 개발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농업인과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광주시 에너지산업본부와 농업 관련 부서를 비롯해 시·군·구 영농형 태양광 담당 공무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개발공사, 전남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공공주도형 계획입지는 공공이 입지 발굴부터 개발계획 수립, 전력계통 연계까지 종합 검토하는 방식이다.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기업의 RE100 전력원으로 활용해 농촌경제와 지역산업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시는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개발 여건이 갖춰진 지역을 대상으로 가칭 '재생에너지 예비지구'를 자체 추진한다. 시·군·구 수요조사와 입지 검토를 거쳐 우선사업지를 선정하고 연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배용석 에너지산업본부장은 "농민은 농사를 지으며 발전수익을 얻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이 지역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공공이 개발을 이끌고 주민이 성과를 공유하는 전남광주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지방시대위, 국회 입법박람회서 '5극3특' 소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6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방분권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사 기간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과 지방분권 정책 추진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10-12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도 함께 홍보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광주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인접
부동산 매물들입니다
1) 매매{매가11억}중흥6거리 광장코너 땅상업지 대지93평
2) 매매{4억5,000}중수청인접 대69평4층건물 월세330만원
3) 매매{13억5,000}중수청인접 대지193평 단층건물 평당700
법률사무실, 커피, 카페, 음식점 최적
4) 매매{2억8,800}중흥6거리 인접 대지64평 평당450만원
5)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 1층90평(면적분할가)
법무사, 변호사사무실 최적
6)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코너 2층70평(면적분할가)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228-0990, 010-4601-139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